

권혁순 대장 3군사령관 취임

국방부는 10월2일자로 권혁순 중장(육사, 34기, 58) 합참군사지원 본부장을 육군대장으로 진급과 동시 3군사령관으로 발령 지난 10월 11일 부 취임식을 거행하였다.

혁순(赫舜) 작헌은 (포항, 좌윤공파, 36世) 선친(先親) 휘(諱) 덕술(德述)과 모(母) 김해김씨 슬하 7남매 맏내로 태어나 포항에서 포항공고를 졸업 후 육군사관학교 34기로 우수한 성적으로 임관하였으며 늘에 사성(四星)장군이 되기 전까지 전후방 야전지휘관, 참모를 거쳐 수도방위사령관을 역임 후 최근 합참군사지원본부장 재직 중 발탁된 혁순 대장은 지(智) 덕(德) 용(勇)를



권혁순 대장은 지난 10월 11일부 3군 사령관에 부임(赴任), 취임사를 하고 있다.

겸비한 무장으로써 권문(權門)에서 최고의 직위로 보임되어 이번에 영예를 주었다. 권문(權門)에서는 권

정당 안동권씨대종원 총재 명의로 화환을 보내어 축하메세지를 전하였다. (권병준 본원기자)

북부화수회를 개칭, 북부종친회로

새 회장에 권창기씨 추대



북부화수회를 개칭한 북부종친회(회장 대령 권영섭)는 지난 10월 12일 오후 6

시 서울시 성북구 하월곡동 '갈비명가 李相' (김윤신관)에서 서울시 도봉, 강북, 노원, 성북구에 거주하고 있는 족친 다수가 참석한 가운데 모임을 가졌다.

이날 권오선씨의 사회로 시조대사공 묘소를 향한 망배에 이어 회장대행 권영섭씨(안동, 부정공파 34世·일도 철학원장)는 인사말을



북부종친회 회장대행 권영섭씨가 10월 모임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통해서 오늘부터 북부화수회를 폐기하고 북부종친회로 개칭(도봉, 강북, 노원, 성북구)4개지역을 묶어 북부종친회로 하고자 하오니 족친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격려 있기를 바라며 많은 좋은 의견을 개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서 권병홍 회장(87, 추밀공파 35世)은 인사에서 우리 모두는 대동단합해 새로 바뀐 북부종친회의 활성화에 힘과 지혜를 모아 달라고 피력했다.

다음 임원 선출에 들어가 권영섭 회장 대행이 권창기씨(72, 안동, 부정공파 35世 權昌基, 광북회강북구 지회회고문)를 신임회장으로 추천해 단장일치 박수로 추대 되었으며 그

의 임원은 새 회장에게 위임했다.

창기 신임회장은 신임인사에서 미약한 힘이나마 열과 성을 다해 종친회 새역사 창출에 총력을 경주하겠다고 말했으며 참석자 각자 소개가 있었다.

靑天 權昌基회장은 前 도봉강북재향군인회 지문위원, 정민운동 중앙본부회장, 효실버카운티회문, 응부통상대표, 안동월곡중학교 교사, 성균관유도회고회문화부장, 도봉구중친회장 등을 역임했으며, 예국지사 故 權正弼옹의 친손이며, 우수공무원상 수상, 치안 및 예비군관계관 표창, 조국수호 6·25 평균지회회고문)를 신임회장으로 추천해 단장일치 박수로 추대 되었으며 그

등정



▲권재진 법무부장은 14일 서울, 부산, 대전, 전주 등 4곳에서 동시에 열리는 위아자 나눔장터에서 판매될 명사 기증품 접수에 '다기 사발 세트'를 기증했다.



▲권도엽 국토해양부장관은 취득세, 양도세를 감면해주는 9·10정책 이후 시장 지표가 조금씩 개선되는 등 "주택시장이 바닥을 다지고 있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지난 9월 26일 중앙선대위 인선에 권영세 前사무총장을 종합상황실장으로 선정했다.



▲권영연 여의도연구소 부소장(前 국회의원)은 6일 국회에서 개최된 한국형 문화체험 숙박브랜드 구축을 위한 정책토론회에 참석했다.



▲2013년 전국생활체육대축전 안동유치를 이끈 권영세 안동시장은 대축전을 통해 경북 북부지역의 단합이 이뤄질지 희망했다.



▲권오경 한양대학교 교학부총장이 27일 서울 남산필레니엄호텔에서 열린 '2012 교광을 위한 사회책임경영의상식'에 참석했다.



▲권경수 세계가톨릭여성연합회 상임이사사는 6-11일 이탈리아 로마에서 열린 정기 이사회에 참석했다. 현재 60여개 나라가 회원국으로 활동하며 여성문제 해결과 가톨릭교회 발전에 힘쓰고 있다.



▲한국문화예술위(위원장 권영빈)는 19일 대학로 아르코예술극장에서 대한민국예술원, 한국예술문화단체 총연합회, 한국민속예술공연연합, 한국국제사립협회와 함께 예술나무운동발족식을 개최했다.

(1면에 이어)

忠莊公 權慄都元帥 賜祭祀 祝文

돌이켜 보오니 우리나라 성종(成宗) 중종(中宗) 명종대(明宗代)에는 하늘이 복(福)을 내리시 명인(名人)과 재제다사(濟濟多士)가 연이어 세상(世上)에 나오시매 선생(先生)은 팔척장신(八尺長身)에 용모가 풍만하며 안색이 엄중하며 행실이 충실하시며 사치를 싫어하고 베풀기를 좋아하시며 효성(孝誠)과 우애(友愛)가 지극하시고 종족(宗族)도 돈독(敦篤)하셨습니다. 선조이십오년(宣祖二十五年)에 의주목사(義州牧使)가 되시고 이듬해 임진년(壬辰年)에 왜적 삼십만군(倭賊三十萬軍)이 침범하니 광주목사(光州牧使)를 제수 받았는데 왜군(倭軍)이 조령(鳥嶺)을 넘어 충주(忠州)를 함락하니 신립장군이 전사하고 전라총청경사의 삼도관찰사(三道觀察使)가 십만군(十萬軍)을 거느리고 진안(振安)에 진격하여 선생(先生)께 대책(對策)을 물으니 방약(方略)을 말하였으니 전라감사(全羅

監司)가 듣지않자 선생(先生)은 광주(光州)로 돌아가 인근 고을에 격문을 보내어 일천오백명(一千五百名)의 군사(軍士)를 얻어 이치(梨峙)로 나아가 주둔하고 호남(湖南)과 영남(嶺南)의 요충지를 장악하니 영남의 왜적(倭賊)이 금산(鎭山)의 왜적(倭賊)과 합세하여 공격해 오자 선생(先生)이 칼을 들고 앞장서서 싸우시니 여러 장수들이 선비도 이리단 말인가 하고 감격하여 사기 증전(士氣中天)하여 왜적(倭賊)을 물리치니 선생(先生)은 전라감사(全羅監司)로 승진되셨으며 발령받자마자 정병 일만명(精兵一萬名)을 거느리고 수원(水原)의 독산성에 확고한 진지(陣地)를 구축하고 기습작전을 감행하여 왜적(倭賊)을 퇴각시켰습니다. 이에 선조(宣祖)는 상방검(上方劍)을 하사하고 여러 진영(陣營)의 의병(義兵)도 모두 선생(先生)의 지휘를 받도록 지시하였습니다. 선조이십육년(宣祖二十六年)에 독산

성에서 고양(高陽)의 행주산(幸州山)으로 옮겨 진영을 구축하자 이월십이일(二月十二日) 서울장안에 있던 왜적(倭賊)이 삼만명(三萬名) 정탐병(精探兵)을 동원하여 산성(山城)을 몇겹으로 포위하자 공사(弓士)들로 비오듯 화살을 쏘게 하고 력사(力士)들은 부녀(婦女)가 낳은 돌을 던져 공격하고 변이중(邊以中)이 제작해준 사십량(四十量)의 화차포(火車砲)를 발사하니 그동안 아침부터 저녁까지 아홉 번 진격했다가 아홉 번 물러났던 왜적(倭賊)이 햇불을 붙이고 성대로 올라오자 선생(先生)이 상방검(上方劍)을 들고 장수들을 독려하니 군사(軍士)들이 생명을 내걸고 싸우매 왜적(倭賊)의 기세(氣勢)가 꺾였고 왜(倭)장수와 병사가 수없이 죽으니 군수품을 버리고 도망갔으며 일백삼십(一百三十)여명의 왜적(倭賊)을 참수함으로써 대침을 거두셨습니다. 명(明)나라 황제와 장수들과 왜인(倭人)들까지 선생(先生)을 충신명장(忠臣名將)이라고 칭송하였습니다. 그후 선조삼십년(宣祖三十年)의 정유재란(丁酉再亂)시에도 직산과 울산에

서 대승(大勝)하셨습니다. 행주대첩으로 서울이 회복되어 임금이 무사히 돌아올 수 있었으니 선생(先生)의 모사계책(謀事策)은 어떠한 육전장수(陸戰將帥)도 비견될 수 없으며 하늘이 문신(文臣)에게 높은 명성(名聲)을 위탁한 것임니다. 오늘날 후세(後世)겨레들은 모진 고난(苦難)을 극복하고 세계(世界)에 우뚝하며 날로 번영 정진하고 있사오나 한편으로 왜(倭)의 후예들 중 침략근성 못버리고 반성(反省)없이 분정(分正)하여 여진(女眞)이 영령(英靈)께서도 여져 분노하지 않으시오리까. 부디 높이 해와 별이 되시어 앞길을 밝혀주시고 모진 바람 비바람으로 왜놈의 간첩을 꾸짖고 요기(妖氣)를 뽑아 내시어 나라를 평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임진란팔주갑(壬辰亂八周甲)이 육십년(六十年)후이온데 내일처럼 바로 다가오는 듯 돌아가신 지 어제같은 듯 기리는 마음이 그치지 않사오며 정성(精誠) 다하여 공경(恭敬)히 국가제향(國家祭享)의 술잔을 올리오니 부디 깊이 살피시어 상(尙) 향(饗) 하시옵소서

贈 議政府右議政 花山府院君 諱 復

증 의정부 우의정

화산부원군

회복

■ 權貞澤 花山府院君宗會長 成均館 典儀



치는 진헌사進獻使로 발탁이 된 것이다. 이는 공이 그동안 장동아·창성 등과 직부로서 밀접했기 때문이었다. 외교적 성과를 위해 공이 참외로서 진헌사로 발탁이 되었는데 그 직위야 경대부인 2품관이 못되는 것이 문제가 되었다. 임금이 이를 염려해 진헌사로 경대부인 유은지를 보냈으니 이번에도 의정부와 중추부에 속한 관원 중에서 2품관 이상을 고쳐 차출해 보내는 것이 어떻냐? 그 문게 된 것이다. 이에 의정부 대신들이 일단 사신의 명칭을 띄웠으면 중국조정에서 관직이 낮고 높음과 관계없이 대우하니 별문제는 없었으니 고쳐 보내는 것도 어렵지 않을 것이 없으니 그렇게 하자고 하는 대목이다. 여기에서 유의할 점은 공이 당상관 통정대부 참외로서 특별로 진헌사 정사로 발탁되었다는 것이다. 이는 공이 중국 사신들과 관계가 매우 원만하여 외교적으로 발휘한 수완이 인정되었던 관계로 볼 수 있다. 그로부터 반년쯤 후인 세종 15년 1433년 5월 13일에 공은 호조참의로서 명의 서울에 사신을 간 기록이 나온다. 이 부분은 지금까지 모르고 있던 사실이 새롭게 발굴된 것이다. 이 날자 실록의 기록은 다음과 같다.

견호조참의권복여경사遣戶曹參議權復如京使 주변경奏邊警 근자과저강주야인등近者婆娑江住野人等 규합동류성군糾合同類成群 돌입분국강계여연등저突入本國江界關延等處 노략인구우마攘

掠人牛馬 재산기혹財產去訖 기후분적등其後本賊等 빈빈견인頻頻遣人 사정홀제어아인등사稱忽制濫野人等 육요재대작적欲要再來作賊 여차공학如此恐赫 규항한 근규向邊都 적계내축적計難測 어선덕팔년사월간於宣德八年四月間 저령평안도절제사최윤덕著書 平安道節製使崔允德 부령군사府丞 초담적중탐探賊種 본적등항거대적本賊等抗據對賊 역궁도찬필宮逃竄 금장포획수將捕獲 적도수내賊徒數內 중피본적로락曾被本賊擄掠 요동개원등저遼東開元等處 주와남부공이십사명住坐男婦共二十四名 도어중도병고이명到於中途病故二名 취차통사호군승성립就差通事護軍宋成立 관입송송요동관押解遼東 도사고환할도事交割 외신질상외臣竊詳 선위차사先爲此事 이령배신김을해已令陪臣金乙亥 재경주본부경제경奏本赴京 거후去後 금거상항사리今據上項事理 의주담理宜奏達

과 미소를 노략질해 재산을 다 가지고 갑니다. 그 후 이 도적 등이 빈빈히 사람을 보내 출자 온 아인 등임을 거짓 칭하고 다시 쳐 들어와 도둑질을 하고저 하여 이와 같이 공갈 협박하여 변방 고을을 향해 유거주하고 이 도적의 계락을 헤아리기 어렵습니다. 선덕(명 선종 연호)8년1433년 4월 동간에 평안도 도절제사 최윤덕 등이 명을 받아 군사를 통솔해 가서는 도적의 자취를 초탐하니 이 도적 등이 항거하여 대적하다가 힘이 다해 달아나 숨어 버렸는데 이번에 저들을 포획 해보니 도적의 무리 안에 일찍이 이 도적에게 노략을 당한 요동의 개원(요녕성 참도현 남쪽에 있던 고을) 등지의 남녀24명이 억류겨주하고 있었는데 데려오는 도중에 들은 병으로 죽고 나머지 요만자 등 22명은 통사 호군 송성립을 차출하여 요동에 책임 호송하여 풀이 죽게 하였다. 도사(요동의 중국 행정장관)와 인수인에게 하였는데 외신(외적이 나가있는 신하)이 가만히 헤아려 이를 먼저 배신(중국황제에 대한제후국의 신하) 김을해로 하여금 주변(황제에게 상주할 원본)을 받들고 경사에 가도록 이미 보내고 그 떠난 후에 이제 위와 같은 상황의 사리를 이치로 마땅히 주달 합니다' 하였다.

이 기록은 이번에 처음 발굴된 것이고 또한 공의 유문(遺文)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던 바와는 그 계문(啓門)이 공의 작문임이 확실하니 그 의의가 매우 크다.

僕射公派祖(諱：守洪)秋享案内

晩秋之節에 派親 여러분들의 家內에 豊饒와 幸福이 가득하시길 祈願합니다. 壬辰年 派祖府君(諱：守洪)秋享을 다음과 같이 奉行하오니 公私多忙하시더라도 家族同件하여 꼭 參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 -

日時：2012年 11月 15日(陰曆 10月 2日) 木曜日 10：30
場所：慶北 安東市 西後面 校里 松夜壇所(松坡齋舍 뒤)
交通：안동터미널에서 풍산 방향 1Km(양손짜장 앞 하차 150m), 서안동IC→시내쪽 4K 송야교 사거리 좌회전→서후 방향 500m(좌측), 남안동IC→송현사거리→풍산 방향 4Km(양손짜장 옆길 150m)
連絡處：慶北 安東市 太華洞 666-62(派宗會館) ☎(054)855-6989
派宗會長：010-5161-4271 總務部長：011-504-2083

2012年 11月 日

安東權氏僕射公派宗會長 權 啓 東